자승 스님의 간절한 원력…“탁발로 전법 지원하겠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워크숍 총평서 공표

“본사서 전법 예산 1억 조성해서 3곳 대학 캠퍼스 전법 책임지면 상월결사서 1곳 추가 전법 연계” 모든 역량 동원 전법 지원 약속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1박 2일 워크숍으로 제가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5~6년동안 제가 탁발해 대학생 전법기금을 모으겠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직접 탁발하며 지원하겠다는 서원을 내보였다. 이는 스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간절한 약속이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9월 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총평에서 대학생 전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20년 전 본사 조실 스님과 총림 방장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당시 어른스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공심, 신심, 원력, 그리고 화합이었다”고 술회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부대중은 원력과 신심, 공심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1박 2일 워크숍의 권역별 토론이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이는 상월결사의 스태프들이 잘 정리해서 포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할 일 분명히 알았다”고 밝힌 자승 스님은 앞으로 교구본사가 대학생 전법 기금 1억 원을 조성해 지역 3곳 대학의 전법을 책임져 줄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상의해 본사 1곳에서 1억원의 전법 기금을 마련해 3곳의 지역 대학 캠퍼스 전법을 지원토록 하려 한다”면서 “이것이 이뤄지면 지역의 4개 대학부터는 상월결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위해 5~6년동안 제가 직접 탁발하면서 전법 기금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원력을 공표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이 워크숍 개최에 공로가 큰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사진 왼쪽)과 김용현 동국대 사회대학장(사진 오른쪽)에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진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역량을 집중할 것도 약속했다. 스님은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불자회 회장, 국회 정각회 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등을 모시고 전법 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함께 전법, 포교로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대학생 전법에 나선 스님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예산을 조성하고 지도법사를 발굴해 열심히 활동을 시작해도 강한 원력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며 “대학생 전법에 나선 스님들은 철처한 지계로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허물도 보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총평 이후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개최에 많은 노력을 한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과 김용현 동국대 사회대학장에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지원·관심은 기본…“스위트한 스님 되세요”

잘 되는 불교 동아리 비결은

9월 5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는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 △경북대 불교학생회 ‘경불회’ △글로벌 수행 놀이터 홍대선원 등의 대학생 전법 성공사례를 공유됐다.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은 지도법사 해동 스님이 중흥을 이끌었다. 1973년 신구대 개교와 동시에 창립된 불교동아리는 부원 감소 등 침체로 2000년대 이후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과동아리로 축소됐다. 하지만 현 지도법사 해동 스님이 나서서 과동아리 형태인 불교동아리를 중앙 동아리로 승격시켰고 올해까지 212명의 부원이 활동하는 거대 동아리가 됐다.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의 인기몰이 비결은 지원이다. 처음 홍보부터 ‘신입부원은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을 내걸었고,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노쇼가 심해 이제는 1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이를 동아리 운영비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해동 스님


김용진 교수


주현우 회장


준한 스님 (발표 순)

법회 단일 행사로 행사를 기획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해동 스님은 “신입생 환영법회와 봉축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항상 뒤풀이 술자리가 있는 법회를 진행한다”면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는 방생법회를 했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는 지도교수인 김용진 사범대 생물교육과 교수가 재창립을 이끈 케이스다. 1976년 창립된 ‘연화’는 15년 전부터 활동이 감소돼 2016년 폐부됐다. 이후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여 스님은 학생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했고,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불교동아리 창립을 제안해 재창립이 추진됐다. 결국, 신실한 신심을 가진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의기투합이 소멸됐던 학내 전법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김용진 지도교수는 “불교 동아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창립에 기여할 ‘핵심 교수’와 학생들을 섭외해야 한다”면서 “인근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를 발전시켜 주변 대학 창립을 지원토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 ‘경불회’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우수 지회로 선정될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다. 1960년 설립된 경불회는 특히 동문들의 지원이 활동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문 후원으로 이뤄지는 ‘선진지 답사’가 입소문이 나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는 후문이다. 주현우 경불회 회장은 “주1회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와 사찰탐방, 불교박람회 관람, 붓다 콘서트, 독서·108배소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표방하는 저스트 비(Just Be) 홍대선원은 핫플레이스 도심 청년 수행처로 급부상하는 도량이다.

이날 주지 준한 스님은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청년 포교를 위한 승가상을 제시했다. 바로 ‘스위트한 스님’이다. 준한 스님은 “사미·사미니 스님들이 중앙승가대에서 4급 승가고시를 보고자 상경해 홍대선원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포교 방안을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스위트한 스님이 되세요’였다”면서 “불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청년들도 정말 위기다. 이들을 편안하고 따듯하게 보듬을 수 있는 ‘스위트한 스님’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불교, 대학생 아지트·플랫폼 되자”

이상훈 회장, 워크숍 기조발표서 강조

現 불교방식 고집 말고 변화
‘말할테니 들어라’ 설법 금물



“대학생들을 전법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교 전법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반드시 경전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는 대학생들의 아지트나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맞는 미래불교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사진)은 9월 5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동아리방을 찾는다고 불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학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불교가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상훈 회장은 발표 내내 “전통적 종교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대에게 현재까지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미래세대로 다가가 미래불교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이상훈 회장은 ‘대학생 전법에 주의할 점’ 등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이것 밖에 안 왔어’라는 말하는 스님이 계신다. 자존감을 중시하는 현재 대학생들은 자신을 숫자로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나는 말할테니 너는 들어라’식의 꼰대 설법은 노이즈 캔슬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템플스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황금법당 수국사 템플스테이



스님과 함께 정진하는 참선 템플스테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가 한번쯤은 스스로 질문을 해 보셨을 질문들…
이번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참선을 통해 답을 찾아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황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일정 (사찰의 사정상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일정명
10:30	10:40	수련복 지급
10:40	11:10	마음수행시간
11:10	12:00	좌선 및 이완명상
12:00	13:00	점심공양 및 자유 휴식시간
13:00	14:00	도량안내
14:00	15:00	차담 및 음악감상
15:00	15:30	회향

휴식형 템플스테이 1박2일

프로그램 일정 (사찰의 사정상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일차

시작시간	종료시간	일정명
14:00	14:00	입소 및 수련복지급(다원)
14:10	15:10	사찰 예절 및 도량 안내
15:10	16:50	자유 휴식시간
17:00	17:50	저녁공양(후원)
18:00	18:20	저녁예불(탕글법당)
18:20	21:00	기유 휴식시간
21:00	00:00	취침시간

• 2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일정명
00:00	00:00	* 프로그램은 사찰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4:30	04:30	기상시간(자율)
05:00	05:20	새벽예불(황금법당)
05:30	07:30	아침공양(후원)
07:30	10:30	자유 휴식시간
11:00	11:50	방사 정리 및 수련복 반납(다원)
12:00	12:02	점심공양 및 퇴소(자율)

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이메일: suguksa@naver.com ☎ (02)356-2001 Fax (02)359-6297